

격려사

자연만물을 이루는 모든 생명들이 자신이 일구어온 결실을 성실하게 내보이는 절기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얻은 결실을 이웃과 나누는 것은 행복과 풍요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존엄한 생명이기에 갖는 너그러움을 밖으로 내보이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 헌신하는 것은 지혜로움을 따르는 정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뜻을 쉽 없이 실천하면서, 생명의 존귀함을 알리고자 진력해온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설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사고 등,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존중, 나아가 이를 위한 실천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오랜 노고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서로가 너무도 고마운 관계입니다. 내 안에서 남을 볼 수 있고, 남의 얼굴에서 나의 웃음을 본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혜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의 눈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는 동행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제 우리사회의 뜻 깊은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실천으로 원력을 이루어가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향기로운 덕행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마음까지 기부하는 문화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거듭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진정한 화합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한 불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면스님의 원대한 원력과 마음까지 나누시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뜻깊은 불사에 많은 사부대중이 성심으로 동참하여 희망과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정토를 이루어 가기를 기원합니다.